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방문

“상공회의소는 최우선 세정파트너이다.”

포천상공회의소(회장 한희준)는 3월 26일 회장실에서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준 회장을 비롯하여 회장단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고병재 포천세무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움에 지역경제계를 대표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는 최우선 세정파트너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역상공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포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